



주 제:	“마음의 눈”	“사순 제 4 주일”	2008년 3월 2일
복음 묵상:	요한 9,1-41	1 사무 16,1 L. 6-7. 10-13 L	에페 5,8-14

오늘 복음에서 태생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 보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뒤집어쓰고 나온” 중죄인 취급을 이웃들로부터 당하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끼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는 어둠이라는 고통으로 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베풀려고 했을까요? 볼 수 없었기에 겪는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동정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볼 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생 소경은 비록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요, 구원 그 자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형태만 인지할 뿐 그 안에 숨겨진 영혼의 소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육체의 눈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바리사이가 될 것입니다.(광주 김준오 신부님 강론..)

### 1. 성가대 소식

- 1) 이제 부활절이 앞으로 3주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난 주에는 미사곡, 거룩한 주님, 문들아 머리 들라, 기억하라, 한 시간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주는 저 산말에 백함, 금요일, 새 계명은, 주 친히 저녁 상에서, 성인 호칭기도(성가 265)를 연습하였습니다. 모든 곡을 다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미사곡(각 파트별), 기억하라, 문들아 머리 들라.를 본당 웹에 올려 놓았으니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2) 부활절 성가 연습 스케줄  
 3/2: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 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3/9: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 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3/16: \*미사곡 \* 거룩한 주님 \* 문들아 머리 들라 \* 기억하라 \* 성주간 성가 \*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 ■ 사순 특강 및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30 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 중에 특강이 있겠습니다.

\*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특강 (무지개 원리) 3월 4일(화) : 차동엽 신부님
- 사순 제 4주(3월 7일) 특강 : 문종원 신부님 (서울 대교구)

■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은 이 사순 시기에 풍성한 전례와 특강에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now you are saying, ‘We see,’ so your sin remains.”(John 9,41)**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1분 명상

‘소경’



소경의 평생소원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마침내 눈을 뜹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눈까지 떴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치유를 통하여 하느님의 힘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셈입니다.  
 소경의 치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통하여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기적은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준비도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의 교훈은 이 점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소경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바리사이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예수님을 욕박지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장님입니다.  
 다음은 소경의 가족과 이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호기심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가 끼칠까 두려워합니다.  
 믿음에서 의심을 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경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싶은 일념으로 기다렸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소경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일생을 살았을 것입니다.